

## 21세기 사변소설과 포스트휴먼 형상들 - 세릴 빈트의 『21세기 사변소설의 생명정치적 미래』를 중심으로\*

오윤호\*\*

1. 한국 SF 비평의 양상과 세릴 빈트의 위치
2. 세릴빈트와 『21세기 사변소설의 생명정치적 미래』 소개
3. 포스트휴먼 형상들과 잉여 생명력의 가능성
4. 21세기 사변소설의 이론화와 현실화
5. 결론

### 국문초록

2020년대 한국 문학계에 불어닥친 SF 열풍은 단순한 장르문학의 확산을 넘어, 21세기 생명공학과 신자유주의가 결합한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는 문학적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고는 한국 SF비평의 양상 속에서 중요한 SF비평가로 자리잡은 세릴 빈트의 『21세기 사변소설의 생명정치적 미래』(2021)를 분석하며, 사변소설의 비평적 방법론과 포스트휴먼 형상들의 가능성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책에서 빈트는 생명과 비생명, 주체성과 객체성의 경계가 해체되는

---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8096301).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조교수

현대적 조건을 ‘에피바이탈리티’로 개념화하며, 마르크스의 ‘실질적 포섭’ 개념을 생명정치 영역으로 확장한다. 푸코의 19세기 생명정치 형상을 대신하는 21세기 형상들로 ‘불멸의 그릇’, ‘살아있는 도구’, ‘생명 기계’, ‘예비 부품’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생명정치의 작동 메커니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잉여 생명력 개념을 통해 포스트휴먼의 대안적 가능성을 탐구한다. 또한 빈트는 ‘사회기술적 상상’과 ‘약속의 미래 담론’ 개념을 통해 사변소설을 인식론적 도구로 재정의하며, 사변소설이 단순히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맞서 현실 자체를 구성하고 대안적 미래를 상상하는 도구라는 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내용은 21세기 SF 비평의 가능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 SF 비평이 서구 중심적 관점을 넘어 한국적 현실의 특수성과 보편적 미래 전망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방법론적 토대가 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주제어: 사변소설, 생명정치, 에피바이탈리티, 세릴 빈트, 한국 SF, 신자유주의, 포스트휴먼리즘)

## 1. 한국 SF 비평의 양상과 세릴 빈트의 위치

2020년대 들어 한국 문학계에는 유례없는 SF 열풍이 불고 있다. 오랫동안 리얼리즘의 전통 속에서 뚜렷한 미학적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2019)<sup>1)</sup>과 <지구 끝 온실>(2021)<sup>2)</sup>, 천선란의 <천 개의 파랑>(2020)<sup>3)</sup>과 <이끼숲>(2023)<sup>4)</sup>이 연

1)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

2) 김초엽, <지구 끝의 온실>, 자이언트북스, 2021.

3) 천선란, <천개의 파랑>, 허블, 2020.

4) 천선란, <이끼숲>, 자이언트북스, 2023.

이어 출간되며 SF 장르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장르문학의 확산이나 독자 취향의 변화로만 해석하는 것은 그 본질을 놓치는 일이다.

이들의 작품은 단순한 장르적 참신함이나 그 확장을 넘어, 동시대의 불안과 희망을 SF 상상력으로 포착해 내는 데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 이는 21세기 자본주의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 구조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특히 생명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신자유주의적 생명정치의 심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회적 조건들이 SF적 상상력에 대한 필요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SF의 부상은 전 지구적 위기와 기술적 전환기를 맞아, 문학이 어떻게 시대와 호흡하며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21세기 SF비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장원은 『세계과학소설사』(2008)<sup>5)</sup>를 쓰면서 한국 SF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저술 성과에 대해 논하면서, 2008년 이전에 한국에서 SF에 대한 저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 같이 깊이 있는 연구서라기보다는 과학소설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전개”<sup>6)</sup>한다고 평가하며 한국 SF 연구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로버트 E. 스콜즈와 에릭 S. 랩킨이 1977년에 쓰고, 1993년에 한국어로 번역된 『SF의 이해』<sup>7)</sup>가 “미국에서 과학소설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연구서”라고 말하며, SF를 과학지식과 문학적 상상력이 결합된 문학 형태로 규정하며 학술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책이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5) 고장원, 『세계과학소설사』, 채륜, 2008.

6) 고장원, 『세계과학소설사』, 2008, 50쪽.

7) 로버트 E. 스콜즈·에릭 S. 랩킨, 『SF의 이해』, 김정수·박오복 역, 평민사, 1993. 이 책의 원전은 로버트 E. 스콜즈(Robert E. Scholes)와 에릭 S. 랩킨(Eric S. Rabkin)이 쓴 *Science Fiction: History, Science, Vision*(1977)이다.

『SF의 이해』는 SF의 역사를 신화시대부터 1980년대 이전까지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며, SF를 현대적 장르로만 국한하지 않고,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상상력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며, SF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새로운 문학이 아니라, 오래된 전통을 계승한 문학임을 보여준다. “3. SF와 과학”에서는 물리학, 천문학, 열역학, 생물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가 어떻게 SF 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작의 출발점이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4. 형식과 주제” 장에서는 신화, 유토피아, 가상의 생물 등 인류가 오랜 세월 문학을 통해 탐구해 온 주제들이 SF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발전하는지를 살펴본다. 스펀즈와 랩킨에게 SF는 당대 과학지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과학지식을 문학적 형식과 주제를 통해 구현한 독특한 문학 양식으로 이해하려는 문학관을 잘 보여준다. “5. 10대 SF”에서 『프랑켄슈타인』부터 『충격파를 타고』(1976)라는 작품까지 10권의 정전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 장르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주요한 SF 작품들을 서술함으로써, 대중문학으로만 여겨지던 SF에 문학적 권위를 부여하고, 진지한 연구 대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 책은 1993년에 한국어로 번역됨으로써, PC통신과 인터넷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SF 팬덤 형성과 2000년대 SF가 자리잡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8년에 쓰여진 고장원의 『세계과학소설사』는 앞서 소개한 『SF의 이해』와 같이 SF에 접근하기 위한 역사적 이해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도, 남한과 북한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SF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서구 중심의 SF 역사와 더불어 20세기 한국 SF의 모습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서문에도 저자가 강조하고 있듯 국내 최초이지만 한국 SF에 대한 학술적 접근이나 비평적 작업의 완성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SF란 무엇인가-SF 가이드 총서4』(2015)<sup>8)</sup>는 SF의 정의, 환상소설과의 차이, 하드 SF와 소프트 SF의 구분, SF의 문학적 논쟁 등을 중요한 장으로

제시하면서, SF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그 이론화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또한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 이어지는 서구의 SF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2015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한국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SF 연구가 진행된 양상을 정리하고 있어, 한국 SF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해 놓고 있다.<sup>9)</sup>

이러한 성과와 함께, 장정희의 『SF장르의 이해』<sup>10)</sup>는 기존의 SF 저술들과는 달리 SF에 대한 교육적·비평적 시각을 전면화함으로써, SF 이론을 정식화하고, SF 비평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이전의 저술들이 SF 정전을 중심으로 SF의 역사를 풀어나갔다면, 장정희는 21세기의 기술문명이 만들어내는 “현재”로 SF를 가져온다.

최근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국이나 드론, 3D 프린터의 개발 등 각종 첨단 기술 발전으로 SF<sup>Science Fiction</sup> 속 가상세계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 있다. 특히 정보공학 및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은 SF와 현실의 경계를 급속히 무너뜨리고 있으며 우리 삶의 패턴이나 가치관은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급변하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미래 삶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SF 장르는 흥미로운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머리말 중에서)

장정희는 21세기 첨단 기술 문명과 생명공학의 발전 속에서 우리 혹은 전지구적인 삶이 변화하는 가운데, ‘SF와 현실의 경계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시각은 그동안 SF를 B급 문학으로 취급하거

8) 고장원, 『SF란 무엇인가-SF 가이드 총서4』, 부크크, 2015.

9) 고장원의 저술들은 SF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 SF 역사 및 작품 소개와 팬덤에 기반한 저널리즘적인 내용이 강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보다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0) 장정희, 『SF장르의 이해』, 동인, 2016.

나, 허구적인 상상력으로 매도하려던 논의들을 반박하면서, ‘SF가 우리 시대의 리얼리즘 소설이 되고 있음’을 통찰하지만, 사실 이러한 학술적 논의는 책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책은 SF가 “미래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SF의 교육적 효용 가치에 주목한다. 서문에서 SF가 “실제 우리 삶과 연관될 수 있는 주요한 학습 영역”이라고 정의하고(11쪽),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SF를 교육하는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함”(12~13쪽)을 강조한다. “SF교육의 모듈구성”이라는 목적에 따라, “1장 SF의 범주”에서는 스페이스 오페라와 우주여행, 시간여행과 대체역사, 외계인, 유토피아/디스토피아 등 SF의 주요 하위장르들의 특성과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2장 SF와 비평이론”의 경우 주목받는 SF와 관련된 주요한 비평이론인 마르크시즘,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테크노오리엔탈리즘 등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3장 첨단기술과 SF”에서는 사이보그론, 사이버스페이스론, 나노기술 등과 같은 우리시대의 첨단기술문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을 서문의 내용에 따라 정리하면, ‘SF의 주제나 모티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면서, 비평적 시각을 가지고, 현시대의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고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서구의 SF이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SF 비평의 중요한 지평을 형성한다는 점, 그리고 SF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과 사고의 대상이 되며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학 영역이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 책은 큰 의의가 있지만, 서구 중심으로만 SF 작품 및 비평 이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2017년에 한국어로 번역된 토마스 M. 디쉬의 『SF 꿈이 만든 현실』<sup>11)</sup>은

11) 토머스 M. 디쉬, 『SF 꿈이 만든 현실』, 체계명 역, 이카루스미디어, 2017.

작가이면서 비평가인 이중적 정체성이 만들어낸 독특한 SF 비평서로, 20세기 미국 SF가 당대의 현실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연동되면서 변화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디쉬는 『강제 수용소』(Camp Concentration, 1968) 등의 고전 SF를 창작한 내부자적 경험을 바탕으로, SF와 종교 운동(사이언톨로지, 헤븐스게이트)의 연관성, 미국 군사 정책(레이건의 스타워즈 계획)에 미친 영향, 미국 사회가 기술을 대하는 태도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특히 L. 론 허버드의 사이언톨로지 같은 사이비 종교나 SF의 과대광고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소설가로서의 문학적 감각을 결합하여 단순한 팬덤적 옹호나 학술적 거리두기를 넘어선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한다. 이는 SF를 문학 장르를 넘어 미국 사회와 문화 전반의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SF 비평의 지평을 확장하고, 장르가 성숙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성찰적 비평의 모델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만 20세기 미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한다는 점, 이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나 학술적 깊이가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2020년대 이후 한국 SF에 대한 보다 장르적이고 실천적이면서도 비평적 이론화의 가능성을 열었던 것이 세릴 빈트이다. 세릴 빈트는 『에스에프 에스프리』(2019)<sup>12)</sup>와 『SF연대기』(2021)<sup>13)</sup>을 통해 SF 장르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틀과 실천적 비평의 방법론을 한국SF에 제시하게 된다.

『에스에프 에스프리』(2019)<sup>14)</sup>는 SF를 과거로부터 창작되어온 문학 장르가 아닌 ‘기술 문명이 만연되어 있는 현재’를 인식하는 가운데 미래를 상상하는 문학 장르로 설정하고, 인지적 소외·노름·메가텍스트·사변소설·

12) 세릴 빈트, 『에스에프 에스프리』, 전행선 역, 정소연 (해제) 역, 아르테, 2019.

13) 세릴 빈트·마크 볼드, 『SF연대기』, 송경아 역, 허블, 2021.

14) 이 책은 세릴 빈트가 2014년에 쓴 *Science Fiction: A Guide for the Perplexed* (2014)을 번역한 것이다.

실천공동체 등의 비평적 용어를 구체적으로 이론화하고 있다. 특히 빈트는 SF가 ‘노뭉(novum)’과 ‘인지적 소외(cognitive estrangement)’<sup>15)</sup> 효과를 통해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다코 수빈(Darko Suvin)의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다. 다코 수빈은 『SF의 변형: 시학과 문학사에 관한 연구』(*Metamorphoses of Science Fiction: On the Poetics and History of a Literary Genre*, 1979)에서 SF를 “인지적 소외와 노뭉을 지배적 문학 장치로 삼는 문학 장르”(pp.3-7)로 정의한 바 있다. 수빈의 이론적 틀에서 노뭉은 텍스트 내에서 경험적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요소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환상적 요소와는 구별되는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혁신을 의미한다. 인지적 소외는 이러한 노뭉을 통해 독자가 자신의 일상적 현실을 낯설게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되는 미학적 효과를 의미한다. 빈트는 이러한 수빈의 개념을 21세기의 테크노 사이언스 현실에 맞게 재맥락화하면서, ‘7장 신념의 문학’과 ‘8장 변화의 문학’에서 SF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거나 기술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사회문화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대안적 미래를 상상하는 정치적 잠재력을 지닌 장르임을 강조하며, SF를 과학기술과 인간, 사회의 관계를 성찰하는 동시대적 사유의 핵심적 양식으로 자리매김한다.

『SF연대기』(2021)<sup>16)</sup>에서는 SF 장르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추적하면서 동시에 각 시대의 사회정치적 맥락과 SF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분석한다. 빈트는 이 저작에서 SF를 단순한 문학 장르가 아닌 ‘메가텍스트

15) 인지적 소외는 독자가 작품 내에서 낯선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일상적 세계관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인지적 변형 과정을 의미한다.

16) 이 책은 세릴 빈트가 마크 볼드와 같이 쓴 *The Routledge Concise History of Science Fiction*(Routledge, 2011)를 번역한 것이다.

(megatext)’로 개념화하는데, 이는 개별 작품들이 상호텍스트적으로 연결되어 형성하는 거대한 담론적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특히 그녀는 SF 팬덤과 작가, 비평가들이 형성하는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가 어떻게 장르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재정의하고 확장해 왔는지를 상세히 추적한다. 1920년대 휴고 건스백(Hugo Gernsback)의 『어메이징 스토리즈』(*Amazing Stories*, 1926~현재) 창간부터 21세기 기후픽션(cli-fi)과 아프로퓨처리즘(Afrofuturism)의 부상까지, SF의 역사를 여섯 개의 주요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각 시기마다 SF가 당대의 기술적 불안, 정치적 갈등, 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굴절시켜 표현했는지를 보여주는데, 특히 냉전 시대의 핵 공포, 1960~70년대의 뉴웨이브 운동과 페미니스트 SF, 1980년대 사이버펍크의 등장, 그리고 최근의 포스트휴먼 담론과 인류세(Anthropocene) 시대의 생태학적 상상력이 SF 장르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정치하게 분석한다. 빈트는 이러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SF가 각 시대의 사회적 관심사와 실천공동체의 활동에 따라 표현되는 문화적 장치로 기능해 왔음을 논증하며, 오늘날 SF가 기후위기,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도전들을 사유하는 데 필수적인 비평적 도구임을 역설한다.

우선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빈트의 SF 비평이론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SF를 선형적 진보의 서사나 단순한 장르적 관습의 집합이 아닌, 각 시대의 특수한 사회기술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역동적 담론 체계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연대기적 SF 역사 서술이 전제하는 발전론적 시간관을 해체하고, SF가 지닌 시간적 복잡성과 다층적 현실 인식의 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빈트에게 SF는 선형적으로 진화하는 장르가 아니라, 각 시대의 고유한 문제의식과 상상력의 지평 속에서 독특한 주제와 형식을 창출하며 스스로를 갱신하는 살아있는 담론

체계인 것이다.

이 두 책의 기여는 한국 SF 비평이 직면한 근본적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빈트가 제시한 인지적 소외 및 노름, 메가 텍스트와 실천공동체 개념은 특히 한국 SF 팬덤과 창작자, 비평가들이 형성하는 역동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2020년대 한국적 SF의 정체성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단서를 제공한다. 사실 거대한 SF 작품의 흐름 속에 놓인 서구 SF에 비해 한국 SF의 규모는 초라하다. 그러나 기존의 역사적 개괄이나 장르적 분류에 머물렀던 한국 SF 연구를 넘어 서서, SF를 현대 사회의 복합적 현실을 사유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비판적 도구로 재정립하는 이론적 기반은 한국 SF가 단순히 서구 SF의 모방이나 번역 수용에 그치지 않고, 한국적 현실의 특수성과 인류 보편의 미래 전망을 동시에 담아내는 독자적 사유와 창작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21세기 SF는 현재의 사회적 모순과 미래의 가능성을 동시에 사유할 수 있는 비판적 도구로 기능하게 되었다. 전통적 리얼리즘 문학이 경험적 현실의 재현에 천착한다면, SF는 ‘아직 오지 않은 것’과 ‘이미 도래한 미래’를 동시에 포착함으로써 현재를 낫설게 만들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특히 21세기의 기술과학 및 생명공학적 현실이 일상을 급속히 변형시키는 상황에서, SF는 기존의 리얼리즘 문학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동시대의 복합적이고 혼종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가장 적합한 인식 체계로 부상하게 된다. 이처럼 복잡하고 전례 없는 현실 앞에서 기존의 문학 비평 방법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셰릴 빈트의 『21세기 사변소설의 생명정치적 미래』<sup>17)</sup>가 제시하는 SF 비평이론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17) Sherryl Vint, *Biopolitical Futures in Twenty-First-Century Speculative Fi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본고에선

## 2. 셰릴빈트와 『21세기 사변소설의 생명정치적 미래』 소개

셰릴 빈트(Sherryl Vint)는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UC Riverside)의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1세기 SF 비평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요크 대학교(York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초기에는 빅토리아 연구와 문학 이론에 집중했다가 점차 SF와 포스트휴머니즘으로 연구를 확대해 왔다.

빈트는 SF 장르 자체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이론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Andrew M. Butler와 공저한 『루트리지 SF사』(*The Routledge Concise History of Science Fiction*, 2011)는 SF의 기원을 19세기 과학 낙관주의와 산업혁명기의 상상력에서 찾으며, 21세기에 이르기까지의 SF 장르가 사회문화적 변화와 맞물려 변화하는 양상을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앞에서 분석한 『SF연대기』(*Science Fiction: A Guide for the Perplexed*, 2014)<sup>18)</sup>는 SF 장르의 핵심 개념들과 비평 이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입문서이자 고급 이론서로, 그 논의를 확장하고 심화시킨 MIT Press Essential Knowledge 시리즈의 『SF』(*Science Fiction*, 2021)<sup>19)</sup>에서는 SF를 급격한 기술 변화를 이해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도구로 재정의하며, 인공지능, 유전체학, 기후변화 등 현대적 쟁점들과의 연관성을 탐구한다. Mark Bould, Andrew M. Butler, Adam Roberts와 함께 *The Routledge Companion to Science Fiction*(2009)<sup>20)</sup>과 그 개정판인

---

『21세기 사변 소설의 생명정치적 미래』라고 표기하려고 한다. 책 속에 나오는 이론가와 작가의 이름은 영어표기를 하였다. 본고에 사용된 특정 용어 및 내용 번역을 할 때에 Claude와 Perplexity 등의 AI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18) Sherryl Vint & Mark Bould, *The Routledge Concise History of Science Fiction*, Routledge, 2011.

19) Sherryl Vint, *Science Fiction*, The Mit Press, 2021.

『루트리지 SF 안내서』(*The New Routledge Companion to Science Fiction*, 2024)를 통해 국제적으로 저명한 56명의 연구자들이 SF 장르의 역사와 연구를 종합적으로 개관하고 있으며, 역사·이론·이슈 및 과제·하위장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빈트는 SF 장르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역사적 전개를 정리하는 동시에 현대적 쟁점들과의 접점을 모색함으로써, SF를 단순한 오락물이 아닌 현실 이해와 미래 전망을 위한 비평적 도구로 정립하게 된다.

특히 그녀의 연구 방법론은 SF를 고립된 문학 장르로 보지 않고, 과학기술학, 포스트휴머니즘, 생명정치학 등 다양한 학제간 접근을 통해 현대 사회의 복합적 현실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주목함으로써, 전통적인 SF 연구가 추구하는 장르사나 작품 분석에 머무르지 않는다.

SF 연구와 함께 포스트휴먼 연구에서 빈트는 기술과 주체성,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재사유하는 작업을 주도해 왔다. 『내일의 신체들 : 기술, 주체성, 그리고 SF』(*Bodies of Tomorrow: Technology, Subjectivity, Science Fiction*, 2007)<sup>21)</sup>에서는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의 사이보그 이론이나 N. 캐서린 헤일즈(N. Katherine Hayles)의 포스트휴먼 연구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과학 소설 장르를 분석한다. 미래의 신체와 정체성이 기술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며 사이보그, 인공지능, 생명공학,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주체성과 신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동물적 타자성: SF와 동물의 문제』(*Animal Alterity: Science Fiction and the Question of the Animal*, 2010)<sup>22)</sup>는 이러한 논

20) Mark Bould & Andrew M. Butler & Adam Roberts & Sherryl Vint, *The Routledge Companion to Science Fiction*, Routledge, 2009.

21) Sherryl Vint, *Bodies of Tomorrow: Technology, Subjectivity, Science Ficti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7.

22) Sherryl Vint, *Animal Alterity: Science Fiction and the Question of the Animal*,

의를 인간/동물 경계로 확장하여, 데리다의 동물성에 대한 철학적 사유나 들뢰즈·가타리의 '되기(becoming)'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과학 소설에서 동물이 어떻게 재현되고,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가 어떻게 탐구되는지를 분석한다. Graham Murphy와 공동편집한 『사이버펑크를 넘어서: 새로운 비평적 관점들』(*Beyond Cyberpunk: New Critical Perspectives*, 2010)<sup>23)</sup>은 사이버펑크 이후의 포스트휴먼적 상상력을 다루며 1980년대 사이버펑크 정의에서 벗어나 인간과 정보기술, 글로벌 자본의 교차 속에서 새로운 삶을 상상하는 문학적·문화적 실천의 장임을 보여줬고, 최근작 『21세기 사변소설의 생명정치적 미래』에서는 21세기 생명정치학적 관점에서 사변소설 속 포스트휴먼 조건을 분석하며, 생명공학과 신자유주의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삶'(혹은 생명)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탐구한다.

셰릴 빈트는 SF비평가이며 연구자이지만, 그의 학술 활동을 살펴보면 21세기 사상가에 가깝다. 2014년에 있었던 한 인터뷰<sup>24)</sup>를 살펴보면, 셰릴 빈트의 학문 여정은 푸코의 생명정치학에서 시작하여 과학기술학, 포스트휴머니즘, 미디어 연구, 그리고 투기 자본주의 분석에 이른다. 셰릴 빈트는 인터뷰 시작부터 자신의 최근 책이 “과학 소설과 실제 현대 과학이 융합되는 방식을 연구하며, 특히 생물정치학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산업 혹은 농업 대기업들은 생물 종을 적극적으로 다양한 변형시키고 있으며, 유전체학, 개인 맞춤 의료, 합성생물학의 발전은 생명, 자연, 신체

---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10.

23) Graham J. Murphy·Sherryl Vint, *Beyond Cyberpunk: New Critical Perspectives*, Routledge, 2010.

24) <https://hieroglyph.asu.edu/2014/11/interview-sherryl-vint/> 이 인터뷰는 2014년 11월 아리조나주 대학교 Project Hieroglyph의 조이 에쉬리히와 함께 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창의적인 사상가들과의 심층 인터뷰 시리즈 중 네 번째”에 해당한다. 이후에 인용 표시된 내용은 이 사이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에 대한 복잡한 과학적 허구의 아이디어를 생명에 불어넣고 있다.”고 말한다. “과학 연구와 그 사회적, 윤리적, 법적 함의를 문제삼는 최신의 SF”로 TV드라마 <오피블랙>을 소개하며, 특허법과 기업의 생물학 통제, 개인 맞춤형 즐기세포주 및 의료 민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힌다. 자신이 연구하는 생명정치학의 출발점이 미셸 푸코라고 밝히고, “인구 전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정치 권력”의 폭력성을 강조하며 “사회가 어떤 종류의 삶을 권장하고, 어떤 종류의 삶을 천대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영화 <월드워Z>를 예로 들어 사람과 사람 아닌 것(좀비)를 구별하려는 재현이 우리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게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녀에게 SF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거나 현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폐된 구조를 드러내고 대안적 미래를 상상하는 비판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푸코의 문제의식은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책의 매우 중요한 방법론이 된다.

빈트의 연구는 자본주의 논리에 저항하며 생명의 가치를 포스트휴먼 담론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터뷰에서 제시한 ‘사변적 상상력’과 경제의 관계에 대한 통찰은 더욱 정교한 분석으로 발전하는데, ‘벤처캐피털 펀딩’과 ‘소셜미디어 회사들의 사업계획’에서 발견한 SF적 성격<sup>25)</sup>은 신자유주의가 생명 자본 하에서 생명을 재창조하는 메커니즘의 핵심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21세기 사변소설의 생명정치적 미래』의 출발점이 된다.

빈트에게 가장 영감을 준 도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은 그녀 연구

25) 가령 유전자 편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 회사가 “우리의 기술은 10년 안에 암을 치료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투자회사로부터 펀딩을 받는 상황을 생각할 때, 빈트에게 있어서 이 사업계획서는 사변 소설의 상상력과 거의 같다고 보고 있다.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해러웨이의 “과학소설과 사회적 현실 사이의 경계는 환상”이라는 명제는 21세기 생명공학 시대의 핵심 진실이 되었다. “유기체적 몸, 기술, 허구와 연구, 대중의 반응, 그리고 윤리적 헌신” 사이의 교차점에 대한 해러웨이의 관심은 빈트로 하여금 생명공학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존재들(복제동물, 합성생물학적 개체, 인공장기, 유전자 편집 생명체)을 단순히 과학적 성취나 경제적 상품이 아닌, 새로운 윤리적·정치적 관계를 요구하는 존재들로 사고하게 만든다.

이 인터뷰에서 제시된 빈트의 시각은 2021년 출간된 『21세기 사변소설의 생명정치적 미래』에서 하나의 통합된 이론적 틀로 수렴된다. SF 연구와 포스트휴먼 연구라는 두 방향으로 전개되던 셰릴 빈트의 연구가 통합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주목할만한 성과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셰릴 빈트(Sherryl 빈트)의 『21세기 사변 소설의 생명정치적 미래』는 현대 사회에서 생명과 자본이 맺는 새로운 관계를 사변 소설을 통해 분석한 연구서다. 생명공학에 의한 생명의 상품화가 우리의 삶과 사고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자유주의가 생명자본 하에서 생명을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게 재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문에서 빈트는 21세기에 들어 생명과 비생명, 주체성과 객체성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현상을 ‘에피바이탈리티(Epivitality)<sup>26)</sup>’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하며, 이러한 생명정치의 변화가 사변 소설(혹은 영화)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서문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10개 장에 걸쳐 체계적으로 탐구한다.

26) 셰릴 빈트가 제시한 ‘epivitality’를 한국어로 번역하기는 쉽지 않다. 접두어(epi) 때문에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비)생명과의 관계(대립) 속에서 서로 뒤섞이고 침윤된다는 의미와 기술적·경제적·정치적 조건 위에서 생명성이 확장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초생명성’이나 ‘확장생명성’이라 번역하기에는 그 의미가 중층적이다. 본고에서는 ‘에피바이탈리티’라고 표기하려고 한다.

서문 : 신자유주의와 생명의 재창조

1장 유예되는 죽음, 재창조되는 생명 : 불멸의 그릇

2장 새로운 육체 : 생명 기계와 재형상화되는 인간

3장 자본 재생산 : 모성과 생산성

4장 잉여 가치 : 이식과 대체가능한 생명

5장 생명 산업 : 상품으로서의 생명력

6장 일하기 위해 살기 : 생명자본, 합성생물학, 그리고 노동의 불안정화

7장 최적화된 생명 : 제약 건강과 일회용 몸들

8장 잉여 생명력과 포스트휴먼 가능성

결론 : 자본주의, 생명정치, 그리고 새로운 몸 정치

서문은 이 책을 쓰는 세릴 빈트의 사상적 배경과 연구방법론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알렉산더 와인스타인(Alexander Weinstein)의 단편소설 〈양에게 안녕이라 말하기〉(“Saying Goodbye to Yang”)에 나오는 안드로이드 로봇 양의 죽음(고장)이 불러오는 생명과 비생명, 주체와 객체,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서로의 경계를 잠식해 나가는 현상에 주목한 세릴 빈트는 ‘에피바이탈리티의 생명정치’의 조건들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인 ‘생명을 실질적으로 포섭(subsumption)<sup>27)</sup> 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자본’이 내포한 사변적 현상들을 우리 시대의 생명공학의 현실과 연결시킨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사변소설의 상상력과 푸코 등의 생명정치 철학자들이 의미를 부여했던 장치(dispositif)<sup>28)</sup> 및 호모 이코노미쿠스 개념을 가져와 신자유주의 시대 생

27) 포섭(Subsumption)은 다른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거나 통제하는 상태라는 의미에서 종속이나 포섭으로 번역할 수 있다. 빈트가 이 용어를 쓴 것은 자본이 생명을 단순히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의 생산과 관리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새로운 존재론적 상태로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어서, 본고에서는 포섭이라고 번역하려고 한다.

명 정치의 의미를 설명한다. 푸코의 생명정치 형상(figures)<sup>29)</sup>을 대체할 4가지의 포스트휴먼 형상들(불멸의 그릇, 살아있는 도구, 생명 기계, 예비 부품)을 제안하고, 신자유주의적 생명정치에 대한 대안으로 포스트휴먼적 전환과 다종간 협력을 통한 상호주체성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빈트는 21세기 생명정치의 위기가 드러나는 현실을 진단하면서도, 사변적 상상력을 통해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장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서론에서 강조한 포스트휴먼 형상 네 가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5장에서 8장까지는 그 기본적인 형상으로부터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5장은 4장에서 분석했던 특정 부품(신체 장기 및 조직)을 넘어서 생명 전체의 경제학을 다루려는 생명산업을 다루고 있다. 6장은 2장에서 다루었던 ‘살아있는 도구’를 확장하여, 합성생물학을 통해 처음부터 노동을 위해 제작된 존재들이 보여주는 주체성 투쟁 및 노동력 착취를 분석하며 다종족 번영 및 새로운 인격 장치를 모색한다. 7장은 3장에서의 논의를 확장한 것으로, 모든 인간의 건강을 ‘인간 자본’으로 관리하며 신체의 생물학적인 역량이 경제적 목적에 맞게 최적화되고 도구화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8장은 생명이 자본에 완전히 포섭되는 상황에서도, 생명 자체가 가진 잉여성과 창조적 잠재력으로 인해 그 포섭을 넘을 수 있다는 희망적 전망을 보여주며 협력을 추구하는 포스트휴먼적 삶의 방식을 제안한다. 결론에서는 코로나

28) 장치(dispositif)는 일반적으로 장치라고 번역되지만, 물건이나 기계 장치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배치라고 하면 너무 공간적 의미로 환원하게 된다. 빈트의 논의에서 장치는 지식과 제도, 주체성이 통합되지 않는 채 전략적이고 권력적인 효과를 낳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번역어로 장치라고 번역하려고 한다.

29) 형상(figure)은 생명정치에서 특정한 권력, 주체, 제도, 현상 등이 사회적·정치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나 상징적 이미지로 이해할 수 있어서 형상이라고 번역한다.

시대를 겪는 과정에서 생명 정치의 위기와 산업적 착취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포스트휴먼적 가능성들을 정치적 실천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SF는 단순히 위기의 순간을 재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상상하고 구성하는 정치적 실천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아가는 인류의 역사에 대한 세릴 빈트의 관점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세릴 빈트는 서구 제국의 식민주의라는 과거 역사가 21세기 현재 생명정치 속에서도 재구조화되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마르크스 이론으로부터 이어지는 자본과 노동, 생명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의 문제를 통해 서구 부르주아 백인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인간 개념을 넘어서고자 하며, 포스트휴먼의 미래를 상상하려고 한다.

세릴 빈트는 이 책 전반에 걸쳐 21세기 인간도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남아 있으며, 그들의 생명은 신자유주의의 생명자본에 실질적으로 포섭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식민주의적 생명정치 시스템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생명 정치 내부에서 여전히 작동하며, 식민주의의 생명공학 활용 및 인종적 생명 계급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sup>30)</sup>을 통찰한다. 이 책은 단순하게 21세기 자본을 비판하고 포스트휴먼 형상을 제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종 자본주의로서의 생명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빈트는 은폐된 21세기 신자유주의 생명정치의 구조를 폭로하기 위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생명공학 시대에 창작된 사변소설을 인식론적 도구이며, 이론적 실천의 장으로 활용한다. 또한 다른 '미래'를 상상하도록 만드

---

30) 빈트가 분석하는 임상 노동(대리모, 장기 매매, 임상시험)의 지정학적 분포, 생물학적 행위를 통한 원주민 지식의 전유, 글로벌 남반구 신체의 북반구 생명 연장을 위한 소비 모두 식민주의적 추출 구조가 생명공학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는 매개의 장으로 다룬다. 사변소설을 통해 21세기 생명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착하고, 보다 나은 포스트휴먼의 미래적 삶을 기획하는 것이다.

이때 매우 중요한 분석틀이자 방법론으로 제안되는 것이 푸코의 장치와 포스트휴먼 형상들이다. 푸코는 이질적 요소들이 전략적으로 조직되어 권력 효과를 낳는 장치 개념을 활용하여,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생명정치 형상들<sup>31)</sup>을 제안했다.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제안하는 장치는 지식, 제도, 주체성을 동시에 생산하는 권력/지식의 네트워크로, 특정한 존재 방식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제한한다. 빈트는 근대 인문주의 장치가 ‘인간’을 서구 부르주아 백인 남성의 보편화로 구성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21세기 신자유주의 생명정치 장치는 이를 ‘생명 자체를 자본으로 활용(운용)하는 주체’로 재구성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21세기 사변소설 속 신자유주의 생명정치 장치가 만들어낸 4가지 포스트휴먼 형상들<sup>32)</sup>을 지식, 제도, 주체성의 시각에서 분석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3장에서 빈트가 제시한 네 가지 포스트휴먼 형상들(불멸의 그릇, 살아있는 도구, 생명 기계, 예비 부품)을 중심으로 21세기 생명정치의 장치들이 구체적으로 작동하며 생명을 상품화하고 도구화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빈트가 주장하는 포스트휴먼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하인라인의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사변소설 개념에서 출발하여, 르 권의 사고 실험과 애트우드의 현실성 강조 이론을 거쳐 변화해 온 사변소설 이론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면서, 빈트가 어떻게 사변소설을 현실 분석과 미래 전망을 위한 인식론적 도구로 재정의하는지 살펴보고

31) 히스테리를 가진 여성 (신경증적 몸으로 의료화된 여성), 자위하는 아이 (통제되어야 할 위험한 성), 팻서스식 부부 (재생산을 계획하는 이성애 커플), 동성애자 (병리화된 성적 정체성).

32) 불멸의 그릇(생명연장 기술과 엘리트 욕망), 살아있는 도구(노예화된 합성 노동자), 생명 기계(자기-최적화 주체), 예비 부품(장기 매매와 신체 파편화)

한다.

### 3. 포스트휴먼 형상들과 잉여 생명력의 가능성

21세기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과 신자유주의의 전지구적 확산은 우리가 ‘생명’과 ‘인간’을 사유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유전자 편집 기술, 줄기세포 치료, 인공지능과 결합된 정밀의학, 그리고 최근 팬데믹을 통해 드러난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연결된 정치경제학은 생명이 단순히 자연적 대상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조작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동시에 플랫폼 자본주의의 확산, 인간 노동의 자본화, 그리고 생체 데이터의 상품화는 인간의 생명 활동 자체를 자본 축적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있다. 빈트의 이론화는 이러한 21세기 사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통찰로부터 나온다.

세릴 빈트는 ‘서문: 신자유주의와 생명의 재창조’에서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에피바이탈리티(epivitality)’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자본의 생명에 대한 ‘실질적 포섭’이라는 마르크스주의적 분석틀을 생명정치 이론과 결합시킨다.(pp.8-12)

에피바이탈리티는 생명성(vitality)에 ‘위에, 주변에, 부가적으로’를 의미하는 ‘epi’라는 접두어를 붙여, 분절된 고유한 존재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생명 개념을 넘어서는(epi-) 확장된 생명성(vitality)을 나타낸다. 빈트에 따르면 에피바이탈리티는 21세기 생명정치를 특징짓는 새로운 조건으로, 생명과 비생명(인간과 기계 등), 주체성과 객체성의 경계가 해체되면서 생명이 더 이상 유기체적 경계 내에 머물지 않고 기술적·경제적·정치

적 배치들 속에서 생산되고 관리되는 현상을 지칭한다.(p.9) 이것은 마르크스의 노동 포섭 개념<sup>33)</sup>을 21세기 생명 영역으로 확장한 것으로, 생명공학을 통해 생물학적 과정 자체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재조직됨을 의미한다. 빈트는 그 과정에서 인간의 생물학적 능력(임신, 장기 등)이 노동력이 아닌 상품으로 거래된다고 주장한다.

빈트는 에피바이탈리티가 드러나는 네 가지 양상에 대해 설명한다. 첫째, 유기체/비활성체 경계의 사라짐에 주목한다. 서문에서 제시한 Yang의 이야기<sup>34)</sup>에서 알 수 있듯, Yang은 안드로이드이면서도(친구, 부모, 가족으로서의) 인간적인 삶 또한 가지고 있다. 생명의 기준은 유기체적 신체가 아니라 ‘관계’와 ‘기억’일 수 있음을 주장하며, 빈트는 애나 칭(Anna Tsing)의 “제3의 자연” 개념(자본주의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것)과 종을 가로지르는 “협력적 생존” 전략을 주목하며, 인간 예외주의를 넘어선 다종업힘의 인식론을 요구하기도 한다. 둘째, 에피바이탈리티는 누가 생물 종으로서 번성할 수 있고 누가 소멸할지를 국가적·지역적·집단적 경계를 따

33) 『자본론』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의 포섭에 대해서, 형식적 포섭은 초기 자본주의 단계에서 노동과정을 자본이 수동적으로만 지배하며 기존 노동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는 상태(가령 옷을 만들던 사람이 방직 공장에 취직하는 것)로 설명하고, 실질적 포섭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며 노동과정 자체가 자본의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자동차 조립공장에서 분업화되고 효율화된 생산양식에 맞게 노동자가 투입되는 것)을 말한다. 마르크스는 공장에서의 분업은 노동자의 자본가에 대한 종속을 강화시킨다고 말한다.

34) Alexander Weinstein의 단편소설 “Saying Goodbye to Yang”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백인 부부 Jake와 Kyra는 중국에서 입양한 딸 Mika를 위해 “테크노 사이언스” 안드로이드 Yang을 구입한다. Yang은 형이자 보모이자 중국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자로 설계되었다. 어느 날 Yang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고, 가족은 그를 수리하려 애쓴다. 수리 과정에서 Jake는 Yang의 내장 메모리에 접근하게 되고, 그곳에서 Yang이 기록한 개인적 순간들(나무, 사람들, 그가 사랑했던 여성 Ada)을 발견한다. 가족은 Yang을 단순한 기계가 아닌 고유한 내면을 가진 존재로 재인식하게 되지만, 그를 되살릴 수는 없다. 영화는 Yang의 상실을 애도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 가족, 정체성의 의미를 질문한다.

라 나누는 양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빈트는 식민주의, 가부장제, 제도적 인종주의, 이성애 규범성이 만든 생명 착취와 억압의 역사적 패턴이 21세기 생명정치 안에서 반복적으로 새롭게 재현되고 있다고 보았다. 셋째, 빈트는 생명의 광범위한 상품화에 주목한다. Melinda Cooper와 Catherine Waldby의 '임상 노동(clinical labor)' 개념(대리모, 임상시험 참여 등)은 이러한 상품화가 식민지 역사의 연장선에서 작동함을 보여준다. 네 번째로는, 노동력이 생물학적 능력으로 전환되는 양상에 있다. 전통적 노동 개념이 아니라, 개인 신체의 구체적 생물학적 능력(임신, 혈액/골수 생성, 장기, 세포 반응 등)이 시장에 나오는 현상으로 이는 마르크스의 노동 이론을 넘어선 새로운 착취 형태를 보여준다. 즉 빈트에게 있어서 에피바이탈리티는 생명과 비생명의 경계 해체, 생명 가치의 불평등한 위계화, 생명의 상품화, 생물학에 의한 노동 착취라는 네 가지 양상이 중첩되는 21세기 생명정치의 조건이며, 이를 사유하기 위해 사변소설에서 재현되는 에피바이탈리티의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21세기의 새로운 양상들을 포착하기 위해, 빈트는 하나의 거대한 장치, '21세기 신자유주의적 생명정치 장치'와 그것이 생산하는 네 가지 형상이라는 분석틀을 제안한다. 푸코의 장치 개념을 따라, 이 장치는 외부에서 강제하는 억압 기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스스로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구성하는 생산적 권력으로 작동한다. 이를 지식, 제도, 주체성이라는 세 층위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권력 배치라고 말할 수도 있다.

'지식의 차원'에서, 21세기 생명공학과 유전체학, 신경과학은 생명을 코드와 데이터로 환원하거나, 조작 가능한 생물학적 과정으로 만들고, 경제학은 건강을 '인간 자본'으로 개념화하며 우리의 신체적 역량을 투자하고 관리해야 할 자산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지식들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생명을 어떻게 다루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의 조건을 재설

정하며 생명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한다. 이 지식들은 ‘제도의 차원’에서 21세기 구체적인 산업이나 법률 조항으로 물질화된다. 생명 자본 산업(IVF 클리닉, 장기 시장 등)과 임상 노동 체제(대리모, 임상시험 등), 생체 감시 시스템(건강 추적 앱, 유전자 검사, 건강 보험 등)은 생명의 가치를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재조직하는 힘을 보여준다. ‘주체성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러한 권력적 지식과 제도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고 관리하며, 권력 안에 배치한다. 푸코는 신자유주의 주체는 ‘노동력을 관리하고 경력을 투자로 보는 셀프 기업가’라는 점을 제안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빈트는 생체 정보를 최적화하고 유전자 위험을 관리하며 건강을 장기 투자로 보는 자기 통치 기술이 일상화되었다고 보고, 21세기에는 노동 능력만이 아니라 생명 자체를 경영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릴 빈트는 네 가지 포스트휴먼 형상을 제안하게 된다. 이 형상들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장치가 작동하는 네 가지 방식이며, 동시에 이 장치가 생산하는 구체적인 주체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 형상들이 상호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이며, 한 존재는 계급, 인종, 젠더, 상황에 따라 여러 형상을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로 이 네 형상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과 비판적 해석을 담고 있다.

1장 ‘불멸의 그릇’은 Don DeLillo의 <제로 K>(Zero K, 2016)와 Rachel Heng의 <자살 클럽>(Suicide Club: A Novel about Living, 2018)을 통해, 냉동학이나 수명 연장 시스템을 통해 죽음조차 거부하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엘리트의 욕망을 체현한다. 냉동인간 회사 Alcor에 전신을 20만 달러에 보관하는 실리콘 밸리의 억만장자들, 수명연장 약물을 복용하며 300년을 살려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여기 속한다. 이는 장치의 가장 극단적 논리인 ‘생명의 무한 연장이 자본 축적의 무한성과 일치

한다.’를 보여준다. Rachel Heng의 <자살 클럽>에 등장하는 ‘라이퍼’들처럼, 이들은 죽음을 개인의 실패로 보며 생명을 끝없는 프로젝트로 만든다. 이 형상은 생명의 가치가 개인 시간성의 길이로 측정되는 세계를 보여주며, 동시에 이러한 특권이 소수에게만 가능성을 드러낸다.

2장 ‘살아있는 도구’는 Jo Walton의 <테살리아>(Thessaly Trilogy, 2014-2016) 삼부작과 HBO 드라마 <웨스트월드>(Westworld, 2016~)를 중심으로 생명의 완전한 도구화를 보여준다. <웨스트월드>에서 호스트들은 인간과 구별 불가능하지만 오직 손님 욕망 충족을 위해 존재한다. 이들은 의식이 있어도 ‘프로그램’으로 통제되며, 강간당하고 살해되어도 다음 날 수리되어 재배치된다. 현실에서 이 형상은 대리모 산업의 여성들, 임상시험에 동원되는 글로벌 남반구 신체들, 합성생물학으로 ‘처음부터 노동을 위해 설계된’ 미래의 존재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형상은 노예제가 사라지지 않고 생명공학이라는 ‘과학적 합리성’으로 위장되어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을 폭로한다.

‘생명 기계’는 3장과 7장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주체가 단순한 기계로 환원되는 것을 표현한다. 3장에서는 Jane Rogers의 <제시 램의 증언>(The Testament of Jessie Lamb, 2011)과 Louise Erdrich의 <살아있는 신의 미래 집>(Future Home of the Living God, 2017)을 중심으로 여성의 재생산 능력이 국가와 자본의 필요에 따라 ‘생명기계’로 도구화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이때 여성의 자궁은 더 이상 개인의 신체가 아니라 ‘종의 생존을 위한 국가적 자원’이 되며, 신체의 생물학적 과정 자체(배란, 착상, 임신 등)가 노동이 되고 관리 대상이 된다. 7장에서는 이것이 모든 인간의 건강 전반으로 확장되어 우리 모두를 건강을 최적화하는 셀프 생명 기계로 만드는 양상을 보여준다. Heng의 소설에서 Lea가 300년을 살기 위해 모든 행동을 데이터로 관리하듯이, 우리는 건강을 ‘관리 대상’으로,

질병을 ‘자기관리 실패’로 내면화한다. 이 형상의 핵심은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자기-규율에 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 모든 건강 행위는 실은 이 장치가 우리를 생명 기계로 구성하는 방식인 것이다.

4장 ‘예비 부품’은 Jordan Peele의 <겟 아웃>(Get Out, 2017), Margaret Atwood의 <심장이 마지막에 간다>(The Heart Goes Last, 2015), Ninni Holmqvist의 <유닛>(The Unit, 2006)을 중심으로 일부 인간을 처분 가능한 존재로 상상하며 신체의 파편화를 극단적으로 재현한다. Jordan Peele의 <겟 아웃>에서 Chris의 눈이 경매에 붙여지듯이, 이 형상은 일부 인간을 ‘부품의 저장소’로 취급한다. 현실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신장을 15만 달러에 파는 인도 빈곤층, 난자를 8천 달러에 기증하는 대학생, 이식 관광을 통해 북반구 환자에게 장기를 ‘공급’하는 남반구 신체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형상은, 누군가의 생명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 연장을 위한 자원으로만 의미를 갖는다는 잔혹한 논리를 보여준다.

빈트의 주장을 따르면, 네 형상의 존재성은 계급, 인종, 젠더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억만장자는 불멸의 그릇이 될 선택권을 가지지만, 빈곤층은 예비 부품이 되거나 살아있는 도구로 전락한다. 백인 중산층 여성은 생명 기계로서 재생산을 ‘최적화’하지만, 유색인종 여성은 대리모라는 살아있는 도구가 된다. 이러한 분석 내용에는 21세기 신자유주의 생명정치 속에 내재된 식민주의에 대한 세릴 빈트의 탈식민주의적 문제의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5장부터 7장까지 빈트는 앞서 제시된 형상들이 어떻게 협력적 효과를 내며 거대 산업 규모로 확장되고 일반화되는지를 보여준다.

5장에서는 Carola Dibbell의 <유일한 자들>(The Only Ones, 2006), Cherie Dimaline의 <골수 도둑들>(The Marrow Thieves, 2017),

Claire North North의 <84K>(84K, 2018)를 중심으로, 네 가지 형상이 별개의 산업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생명 산업 복합체의 다양한 측면이라는 점을 분석한다. 냉동인간 산업(불멸의 그릇)은 장기 시장(예비 부품)과 연결되고, 대리모 산업(살아있는 도구)은 유전자 검사 산업(생명 기계)과 얽혀 있다. <유일한 자들>에는 면역력을 가진 'I'가 불멸의 그릇처럼 생명을 보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도구로서 부유층을 위해 아이를 대리출산하며, 생명 기계로서 자신의 면역 체계를 끊임없이 관리하고, 예비 부품으로 언제나 자신의 생물학적 물질(난자, 혈액, 조직)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로 등장한다. 그녀의 삶은 네 형상들이 중첩되고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복합적 억압의 장이다. <꿀수 도둑들>은 기후 재난 이후 꿈을 꿀 수 있는 원주민을 사냥하여, 그들의 꿀수(꿈꾸는 능력의 생물학적 원천)를 추출하여 백인들에게 이식하는데, 이때 원주민은 예비 부품이자 살아있는 도구(꿈 생산자)이며, 그들의 몸 전체가 자원으로 상품화된다. 빈트는 이것을 생명해적행위(biopiracy)의 극단적 형상화라고 지적한다.

6장에서는 Philip K. Dick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1968)로부터 Denis Villeneuve의 <블레이드 러너 2049>(Blade Runner 2049, 2017), Rosa Montero의 <브루나 허스키>(Bruna Husky, 2011-2018)시리즈까지 합성생물학으로 창조된 '처음부터 노동을 위해 설계된 미래의 존재들'을 다루며, SF 속 노예제의 구조가 실제로 21세기 노동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본다. 위 작품 속 레플리컨트가 우리 시대 계약직 노동자들(우버 운전자, 아마존 노동자, 플랫폼 배달 노동자 등)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빈트는 <브루나 허스키>에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인간' 범주 자체를 해체하는 전략에 주목한다. 레플리컨트가 '인간 만큼 권리를 갖지 못한다.'가 아니라, '인간' 개념 자체가 배제를 위해 설계

되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흑인, 원주민,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는 모두 한때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브루나 허스키〉속 브루나의 전략은 ‘우리도 인간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 아니어도 존엄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7장에서 빈트는 Annalee Newitz의 〈자율〉(*Autonomous*, 2017), Sue Burke의 〈공생〉(*Semiosis*, 2018), Thomas King의 〈거북이 등〉(*The Back of the Turtle*, 2014)을 중심으로 ‘최적화’에 의문을 던지며 대안적 생명 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자율〉속 자율 의식을 가진 군사 로봇 팔라딘은 자신의 로봇 존재 방식을 긍정하면서도 관계와 돌봄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여기에서 빈트는 ‘최적화’ 대신 ‘돌봄’이라는 대안적 생명 윤리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외계 행성 팍스에 불시착한 인간들은 의식 있는 대나무 종 스티블랜드를 발견하는데, 스티블랜드는 화학물질을 통해 소통하고, 다른 생명체들과 공생 관계를 맺으며, 수백 년의 기억을 가진 존재이다. 빈트는 이 소설에서 다종간 민주주의(multispecies democracy)의 모습을 발견한다. 〈거북이 등〉속에는, 원주민 전통에서 거북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세계를 떠받치는 존재이며, 모든 생명은 상호의무의 그물망 속에 있으며, 식물을 자원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세계관이 그려져 있다. 이 작품들을 통해 빈트는 돌봄 윤리, 다종 민주주의, 선물 경제를 분석하며, 단순한 최적화가 아니라 진정한 번영(flourishing)의 가능성, 효율성이 아니라 상호주의에 기반한 다종간 거버넌스, 서구 과학을 넘어선 원주민적 인식론의 가능성들을 제안한다.

8장에서 빈트는 Anne Charnock의 『계산된 삶』(*A Calculated Life*, 2013)과 Jeff VanderMeer의 『서던 리치』 삼부작(*The Southern Reach Trilogy*, 2014-2016)을 중심으로 1~7장의 문제의식과 비판을 넘어, 희망을 제시한다. 만약 앞선 장들이 자본이 생명을 어떻게 포섭하는지를 보여

주었다면, 8장은 생명이 항상 그 포섭을 넘어서려고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것을 “잉여 생명력(surplus vitality)”으로 표현한다. 〈계산된 삶〉 속 Jayna는 경제 예측을 위해 감정과 욕망이 제한되고, 의식주가 통제되는 완벽하게 최적화된 존재지만, 후각만큼은 통제당하지 않는다. 후각을 통한 경험들(오래된 책 냄새, 바다 냄새 등)이 데이터로 환원되지 않으면서, Jayna는 생명 기계 이상의 존재가 된다. 빈트는 이 장면에서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하며, 생명의 복잡성이 본질적으로 자본의 환원주의를 넘어선다고 주장한다. 〈서던 리치〉 삼부작에서 Area X는 미국 해안에 갑자기 나타난 신비로운 지역으로 그 안에서는 모든 생명이 변형된다. 생물학자는 이 공간을 조사하려 하지만, Area X는 조사하는 자를 조사하고 변형시키면서, 생물학자를 Area X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개체의 경계를 넘어선 생명의 연속체 속으로 포함시키게 된다. Area X는 인간의 인식과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생명의 과잉을 드러내며, 자본의 포획을 넘어서는 ‘잉여 생명력(surplus vitality)’이 실재함을 증명한다고 빈트는 설명한다. 자본이 생명을 완전히 포섭하려 해도, 생명은 항상 그 개념적·기술적 포획을 넘어선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서론에서 제시한 로지 브라이도티의 긍정적 포스트휴머니즘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브라이도티가 제시한 “집단적이지만 환원적이거나 동질적이지 않은 주체성”(p.12) 개념은 Jayna의 후각과 Area X의 과잉이 가리키는 대안적 주체성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브라이도티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하나이자 동일한 존재가 아니지만,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다.”(p.12) 이는 차이를 보존하면서도 연대하는,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관계 맺는, 상호작용하되 소유하지 않는 새로운 존재 방식이다. 이것이 잉여 생명력이 가리키는 포스트휴먼의 미래이며, 자본주의적 생명정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된다.

빈트가 제시하는 포스트휴먼 상상력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나 생물학적

향상에 대한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21세기 생명정치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면서도, 다른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비판적 실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 논의에 있어서 빈트의 독창성은 포스트휴머니즘을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과 결합한 데 있다. 기존 포스트휴먼 논의가 주로 존재론적·인식론적 차원(인간/비인간 경계 해체, 행위성 재분배)에 집중했다면, 빈트는 '실질적 포섭' 개념을 통해 자본이 생명을 어떻게 착취하는가라는 유물론적 질문을 전면에 둔다. 네 가지 형상(불멸의 그릇, 살아있는 도구, 생명 기계, 예비 부품)은 추상적 존재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급·인종·젠더 위치로서, 누가 냉동인간이 되고 누가 장기를 파는지를 분석하며, 신자유주의 생명자본 산업 안에서 불평등하게 구조화되는 방식을 폭로한다.

빈트는 마르크스가 제기한 핵심 질문인 '어떻게 착취와 소외를 넘어설 것인가?'를 21세기 생명정치 맥락에서 다시 음미한다. 더 이상 노동자 계급의 혁명이 아니라, 차이를 넘어선 상호주의적 얽힘, 자본의 논리를 초과하는 잉여 생명력을 긍정하며, 인간을 넘어선 포스트휴먼 공동체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 4. 21세기 사변소설의 이론화와 적용

'사변(speculation)'은 라틴어 'speculari(관찰하다, 숙고하다)'에서 나온 말로,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현실을 다른 각도에서 성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SF 역사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변소설(Speculative Fiction)이라는 용어는, 하인라인이 1947년에 쓴 에세이 「사변소설의 글쓰기에 대하여」("On the Writing of Speculative

Fiction”)에서 체계화되었다. 이 글에서 하인라인은 “과학소설(Science Fiction)보다 사변소설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는 사변소설을 “그냥 상상해 봐?” 혹은 “만약 이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갖고 있다고 보면서, “인정된 과학과 확립된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과 인류 행동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내는 것”<sup>35)</sup>이라고 말한다. 이때 인간 문제는 새로운 조건에 의해 만들어지고 영향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야기에서 현재 받아들여지는 이론과 반대되는 이론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 새로운 이론은 합리적으로 그럴 듯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인라인의 사변소설 이론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미래 지향적 문학 방법론으로, 현재의 과학적 사실을 외삽해 새로운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간 문제를 다루는 장르로, 확립된 과학적 사실을 철저히 존중해야 하며 작가는 다루려는 과학 분야에 대해 충분히 공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변소설을 단순한 상상이 아닌 과학적 엄밀성에 기반한 논리적 사고실험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SF는 문학적 픽진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

초기 사변소설은 SF의 대안적 명칭으로 여겨졌으나, 1960년대 뉴웨이브 운동과 함께 SF 장르의 경계를 확장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사변소설은 단순한 기술적 상상을 넘어 보다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탐구의 영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어슐러 르 귄(Ursula K. Le Guin)은 1976년 <어둠의 왼손> 서문<sup>36)</sup>에서 사변소설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SF는 과학적 사유를 통해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외삽(extrapolative)’이 아니라, ‘사고 실험(thought experiment)’

35) Gardner R. Dozois ed, *Writing Science Fiction and Fantasy*, St. Martin's Griffin, New York, 1997/1991, p.9.

36) Ursula K. Le Guin, *The Left Hand of Darkness*, Ace Books, 1976. 서문 참조.

이라고 정의한다. 서문에서 르 권은 문학적 사고 실험과 과학 실험은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고 말하는데, 슈뢰딩거의 고양이나 아인슈타인의 엘리베이터처럼 과학 실험이 현실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론을 검증하려 한다면, 문학의 사고 실험은 현실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현재를 낯설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사람들이 양성적이라면?”이라는 <어둠의 왼손>의 설정은 미래를 예측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남녀차별과 권력구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서사적 장치가 된다. 르 권에게 있어서 사고 실험을 통해 탄생한 SF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거울인 것이다. 과학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인과적 예측을 추구한다면, 문학은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의미일까?”라는 의미론적 질문을 던진다. 르 권의 표현처럼, 소설가의 창작은 ‘거짓말’이지만 바로 그 허구를 통해 과학적 사실로는 포착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복합적 진실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르 권의 사변소설은 상상력과 은유를 통해 현실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명확한 답보다는 새로운 질문을 통해 세계를 다르게 보는 능력을 익히는 도구로 다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하인라인과는 거리를 두게 된다.

마거릿 애트우드(Margaret Atwood)는 르 권과의 논쟁에서 SF와 사변소설을 구별하면서, “SF’는 H. G. 웰스의 소설처럼 피를 빨아먹는 화성인들이 금속 용기에 담겨 지구로 날아오는 이야기, 즉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소재로 한 책들”이며 “사변소설’은 쥘 베른의 잠수함이나 열기구 여행 등에 대한 소설로, 실제로 일어날 수 있지만 작가들이 책을 썼을 당시에는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소재로 한 책들”<sup>37)</sup>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설을 사회학적 사실주의<sup>38)</sup>라고 분류하고, 논란은 있었지만

37) Margaret Atwood, *In Other Worlds : SF and the Human Imagination*, Penguin Random House LLC, New York, 2011, p.6.

르 권이 말하는 SF에 자신의 사변소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세릴 빈트의 『21세기 사변소설의 생명정치적 미래』는 사변소설 이론에 있어 근본적인 인식적 전환을 제시한다. 로버트 하인라인(1947)이 사변소설을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사고실험으로, 어슐러 르권(1976)이 현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인식론적 도구로, 마거릿 애트우드가 사회학적 사실주의의 확장으로 정의했다면, 빈트는 사변소설을 21세기 생명정치를 분석하는 필수불가결한 탐구 형식이자, 21세기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대안적 미래를 구성하는 정치적 실천으로 재정의한다. 이러한 시각은 마르크스주의의 자본주의 비판과 역사 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포스트휴먼적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빈트는 사변소설을 재현(representation)의 양식에서 구성(constitution)의 기제로 전환시키려고 한다. 이 책에서 Kaushik Sunder Rajan은 생명공학 스타트업 기업들이 벤처 캐피털을 펀딩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속의 미래 담론(promissory futuristic discourse)’을 분석하며, “과대광고가 현실이거나, 적어도 현실이 되는 담론적 근거를 구성한다.”고 논증한다.(p.9) 이러한 생명공학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미래의 실현 가능한 현실에 대한 담론으로 보려는 시각을 빈트는 사변소설의 사변적 상상력과 연결시키려고 한다.

이는 사변소설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규정이다. 르 권이 사변소설을 “현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거울”로 보았다면, 빈트는 그것이

38) 애트우드의 소설들은 사회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 특히 여성의 삶과 정체성, 권력 구조, 인권 문제 등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와 불평등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특히 『시녀 이야기』처럼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여성의 권리가 박탈되고 재생산 도구로만 취급되는 상황을 다루는 등 사회적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린 주제들을 다루기에, 자기 작품이 단순한 공상이나 환상이 아닌, 현실 세계의 사회적, 정치적 모순과 갈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사실주의’ 문학으로서 기능한다고 보았다.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자체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선행 이론가들이 사변소설이 궁극적으로 실제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지만, 빈트에게 사변소설은 이미 실현된 현실의 일부이거나, 실현될 미래인 것이다. 생명공학 벤처의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과 SF 소설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없으며, 둘 다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허구적으로 상상하고 그에 따라 물질적 실천(연구 투자, 규제 정책, 윤리적 판단)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사변적 영역과 물질적 영역이 너무나 얽혀 있어 어느 하나도 독립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실질적 포섭 개념을 이용한 빈트의 사변소설 분석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선행 이론가들이 사변소설을 주로 문학 내적 특성<sup>39)</sup>을 통해 분석했다면, 빈트는 21세기 사변소설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변화를 드러내는 증상이자 지표로 본다. 냉동인간 산업, 대리모 시장, 장기 매매, 합성생물학은 단순히 SF적 소재가 아니라, 생명 자체가 새로운 자본주의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현실이며, 빈트가 제시하는 네 가지 생명정치적 포스트휴먼 형상들은 그러한 현실로부터 구체화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사변소설 연구를 사회문화 연구의 영역에서 정치경제학의 핵심 영역으로 이동시킨다. 사변소설은 자본주의가 생명을 어떻게 포섭하고 재구성하는지를 가시화하고 자본주의 한계를 폭로하는 텍스트가 된다. Melinda Cooper와 Catherine Waldby의 ‘임상 노동’, Kalindi Vora의 ‘생명 지원’ 분석을 사변소설 독해와 결합함으로써, 빈트는 문학 텍스트가 경제적 착취 구조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것을 자연화하거나 저항하는 담론적 전략임을 보여준다.

39) 과학적 개연성(하인라인), 은유와 낯설게하기(르 귤), 사회적 사실주의(에트워드)

또한 빈트는 사변소설의 기능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인식론적 차원에서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을 구체화하는 차원으로 확장한다. 르 퀴에게 사변소설의 핵심 가치는 ‘세계를 다르게 보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었다. <어둠의 왼손>의 양성인간 설정은 독자로 하여금 젠더 이분법을 낫설게 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게 만든다. 그러나 빈트가 분석하는 21세기 사변소설은 단순히 ‘다르게 보게’ 하는 것을 넘어 ‘다르게 존재하게’ 만든다. 복제인간, 유전자 편집 배아, 합성생물, 인공지능은 더 이상 사고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윤리적·법적·정치적 지위를 부여 받아야 하는 실재하는 존재들이다. 빈트가 HBO의 <웨스트월드>나 <테살리아> 삼부작을 다룰 때, 그녀의 관심은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상상하는가’가 아니라 ‘안드로이드가 실재할 때 ‘인간’ 조건은 어떻게 재구성 되는가’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전환은 푸코의 장치 분석과도 연결된다. 빈트에게 사변소설은 단순히 기존 장치를 비판하며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치가 어떻게 새로운 종류의 존재들을 생산하는지를 실험하는 장이다. <웨스트월드>의 호스트들의 의식 각성은 이 형상에 내재된 모순(노예는 주체가 아니어야 하는데 주체성을 갖는다.)을 드러내며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기’를 지향하게 만든다.

SF는 단순히 ‘더 나은 세계(유토피아)’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장치를 가시화하고 그것이 어떻게 특정한 주체(존재)의 위치를 생산하는지를 폭로하는 것이다. 책 속에서 빈트는 포스트휴먼의 네 가지 형상(불멸의 그릇, 살아있는 도구, 생명 기계, 예비 부품)을 통해 21세기 신자유주의 생명정치 장치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빈트의 장치 비판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재구성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아감벤이 장치를 “포획하고, 방향 짓고, 결정하고, 가로채고, 모델화하고, 통제하거나 확보하는 능력을 가진

모든 것”으로 정의(p.10)했다면, 빈트는 사변소설이 바로 이러한 포획에 저항하고 다른 장치를 상상하는 도구라고 본다. 특히 8장에서 분석하는 작품들, 〈계산된 삶〉과 〈서던 리치〉 삼부작은 신자유주의적 생명정치 장치를 끝까지 분석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완전히 포획할 수 없는 ‘잉여 생명력’의 가능성을 찾는다. 이는 포스트 휴먼 유토피아를 미래의 어떤 지점이 아니라 현재 장치의 균열 속에서 이미 작동하는 힘으로 전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빈트가 Mark Fisher의 ‘자본주의 리얼리즘’ 비판과 Sheila Jasanoff의 ‘사회기술적 상상’ 개념을 결합하며, 비판적이면서도 구성적인 기능을 사변소설에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비판적 기능의 차원에서, 사변소설은 Fisher가 말하는 자본주의 리얼리즘(현재 체제를 유일하고 자연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맞선다. 빈트가 1~7장에서 분석하는 작품들은 에피바이탈리티 체제가 어떻게 생명을 실질적으로 포섭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비판한다. 특히 〈제로 K〉에서는 불멸 산업이 어떻게 엘리트의 시간성을 자본의 시간성과 일치시키는지를, Jordan Peele의 〈갯 아웃〉에서는 장기 시장이 어떻게 인종화된 신체를 파편화하는지를 폭로한다.

구성적 기능의 차원에서, 빈트는 Jasanoff의 사회기술적 상상 개념을 가져와 특정한 미래 비전은 그 미래를 향한 집단적 투자(연구비, 정책, 사회적 수용)를 조직한다고 말한다. 생명공학 벤처 기업의 ‘약속의 상상 (promissory imagination)’이 실제 연구 방향을 결정하듯, 사변소설도 무엇이 바람직한 미래인지에 대한 집단적 상상을 형성한다. 이는 단순한 영향력의 문제가 아니라, 담론이 현실을 구성하는 물질적 힘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8장에서 빈트는 사변소설이 신자유주의적 생명정치를 비판하는 동시에, 로지 브라이도티의 긍정적 포스트휴머니즘에 기반한

대안적 장치의 윤곽을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사변소설의 비판과 구성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사변소설이 현재의 위기를 진단하는 도구이자 동시에 다른 미래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정치적 실천임을 보여주려 한다.

빈트에게 있어서 사변소설은 더 이상 문학의 한 장르가 아니라, '생명과학과 자본의 동시대적 결합을 연구하기에 적절한 담론 형식'이다. 사변소설은 21세기 생명정치를 이해하는 필수불가결한 방법이자 대안적 미래를 구성하는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

## 5. 결론

세릴 빈트의 『21세기 사변소설의 생명정치적 미래』는 단순히 문학 장르로서의 SF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21세기 생명공학과 신자유주의가 결합한 새로운 현실을 이해하는 인식론적 도구로서 사변소설을 재정의하며 SF 비평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확장했다.

빈트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에피바이탈리티'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21세기 생명정치의 변화된 양상을 포착한 것으로 이는 마르크스의 노동 포섭 개념을 생명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생명공학을 통해 생물학적 과정 자체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재조직되는 21세기 현실을 주목하며, 사변소설 속 포스트휴먼 형상들을 분석하고 신자유주의적 생명정치를 비판한다. 이때 '잉여 생명력' 개념을 통해 차이를 넘어선 상호주의적 얽힘과 포스트휴먼 공동체 구성을 고민하는 내용은 포스트휴먼 담론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빈트의 또 다른 중요한 이론적 기여는 사변소설을 인식론적 도구로 재정의한 것이다. '사회기술적 상상'과 '약속의 미래 담론'이라는 개념을 통

해, 사변소설이 단순히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자체를 비판하고 구성하는 담론적 기반이 됨을 논증한다. 이러한 접근은 사변소설을 단순한 문학 텍스트가 아닌, 21세기 자본주의가 생명을 어떻게 포섭하고 재구성하는지를 가시화하고 동시에 대안적 미래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정치적 실천의 장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빈트의 작업에도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주로 영미권 작품에 집중함으로써 문화적 편향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고, 특히 비서구 지역의 사변소설이나 탈식민적 관점에서의 생명정치 분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에피바이탈리티라는 포괄적 개념이 때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분석의 정밀성을 해칠 위험이 있고, 장치 개념 역시 모호하게 적용되는 지점이 있다. 셋째, 8장에서 제시된 잉여 생명력을 통한 희망적 전망이 구체적 정치적 실천 방안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트의 방법론은 한국 SF 비평이 직면한 근본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의 작업은 한국 SF가 단순히 서구 장르문학의 수용이나 모방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특수한 현실과 전지구적 생명정치적 조건을 동시에 탐구하는 독자적 비평 담론을 구축할 가능성을 열어 준다. 나아가 2020년대 한국 SF의 폭발적 성장이 단순한 장르적 유행이 아니라 시대적 필연성을 지닌 현상임을 깨닫게 하며, 향후 한국 SF비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Sherryl Vint. *Biopolitical Futures in Twenty-First-Century Speculative Fi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 2. 논문과 단행본

- 고장원, 『SF란 무엇인가-SF 가이드 총서4』, 부크크, 2015.  
\_\_\_\_\_, 『세계과학소설사』, 채륜, 2008.  
\_\_\_\_\_, 『SF의 법칙』, 살림, 2008.  
\_\_\_\_\_, 『SF의 힘: 미래의 최전선에서 보내온 대담한 통찰 10』. 추수밭(청림출판), 2017.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 허블, 2019.  
\_\_\_\_\_, 〈지구 끝의 온실〉, 자이언트북스, 2021.  
로버트 E. 스콜즈·에릭 S. 랩킨, 『SF의 이해』, 김정수·박오복 역, 평민사, 1993.  
세릴 빈트, 『에스에프 에스프리』, 전행선 역, 정소연 (해제) 역, 아르테, 2019.  
세릴 빈트·마크 볼드, 『SF연대기』, 송경아 역, 허블, 2021.  
심완선, 『SF와 함께라면 어디든: 키워드로 여행하는 SF 세계』, 학교도서관저널, 2023.  
이화인문과학원(역음),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장정희, 『SF 장르의 이해』. 동인, 2016.  
천선란, 〈이끼숲〉, 자이언트북스, 2023.  
\_\_\_\_\_, 〈천개의 파랑〉, 허블, 2020.  
최석진, 『일본 SF의 상상력: 정치·사회·한국』, 그노시스, 2020.  
토머스 M. 디쉬, 『SF 꿈이 만든 현실』, 채계병 역, 아카루스미디어, 2017.  
Gardner R. Dozois ed, *Writing Science Fiction and Fantasy*, St. Martin's Griffin,  
New York, 1997/1991.  
Graham J. Murphy & Sherryl Vint, *Beyond Cyberpunk: New Critical Perspectives*, Routledge, 2010.

- Margaret Atwood, *In Other Worlds : SF and the Human Imagination*, Penguin Random House LLC, New York, 2011.
- Mark Bould & Andrew M. Butler & Adam Roberts & Sherryl Vint, *The Routledge Companion to Science Fiction*, Routledge, 2009.
- Sherryl Vint, *Animal Alterity: Science Fiction and the Question of the Animal*,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10.
- \_\_\_\_\_, *Biopolitical Futures in Twenty-First-Century Speculative Fi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 \_\_\_\_\_, *Bodies of Tomorrow: Technology, Subjectivity, Science Ficti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7.
- \_\_\_\_\_, *Science Fiction*, The Mit Press, 2021.
- Sherryl Vint & Mark Bould, *The Routledge Concise History of Science Fiction*, Routledge , 2011.
- Ursula K. Le Guin, *The Left Hand of Darkness*, Ace Books, 1976.

### 3. 기타자료

<https://hieroglyph.asu.edu/2014/11/interview-sherryl-vint/>

## Abstract

### The 21st Century Speculative Fiction and Posthuman Figures

Oh, Youn-Ho(Ewha Womans University)

The SF boom that swept through Korean literary circles in the 2020s should be understood not merely as the expansion of genre literature, but as a literary practice responding to the new reality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21st-century biotechnology and neoliberalism. This paper analyzes Sherryl Vint's *Biopolitical Futures in Twenty-First-Century Speculative Fiction* (2021), an influential work by a critic who has established a significant position within Korean SF criticism, and introduces the critical methodology of speculative fiction and the possibilities of posthuman figures.

In this work, Vint conceptualizes the contemporary condition in which the boundaries between life and non-life,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are dissolving as “epivitality,” and extends Marx's concept of “real subsumption” to the biopolitical domain. She presents four 21st-century figures—the “immortal vessel,” “living tool,” “vital machine,” and “spare part”—to replace Foucault's 19th-century biopolitical figures, critically analyzing the operational mechanisms of neoliberal biopolitics while exploring alternative posthuman possibilities through the concept of “surplus vitality.” Furthermore, through the concepts of “sociotechnical imaginaries” and “promissory futuristic discourse,” Vint redefines speculative fiction as an epistemological tool, demonstrating that speculative fiction does not simply represent reality but serves as a tool for constructing reality itself and imagining alternative futures against capitalism.

These insights not only demonstrate the possibilities of 21st-century SF criticism but also provide a significant methodological foundation for Korean SF criticism to develop beyond Western-centric perspectives, simultaneously encompassing the specificity of Korean realities and universal future prospects.

21세기 사변소설과 포스트휴먼 형상들- 셰릴 빈트의 『21세기 사변소설의 생명정치적 미래』를 중심으로 / 오윤호 603

(Keywords: speculative fiction, biopolitics, epivitality, Sherryl Vint, Korean SF, neoliberalism, posthumanism)

논문투고일 : 2025년 9월 10일

논문심사일 : 2025년 9월 28일

수정완료일 : 2025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20일